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노동시장 환경의 영향

- 한국에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는 서열화 된 교육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요인 중에서는 부모의 학력보다는 부모의 소득이 중요
-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정도가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노동시장 불평등에 따른 영향도 낮은 소득분위에서 더욱 분명하여 '빈곤의 대물림' 경향이 확인

주

이 글은 "남재욱 외(2019), 『직업 교육과 사회이동』,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보고서 중 제3장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 부분을 재정리한 것임.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개인의 경제적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요인과 개인의 교육요인 외에 노동시장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에는 개인의 성취, 특히 경제적 성취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인 바, 실제로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
 -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지위에 대해 부모요인(부모학력, 가정형편 등)과 본인의 교육요인(학력)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음.
 - 그런데 청년기의 경제적 성취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노동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첫 직장의 선택이 영향을 받고, 이것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주기 때문
 - 최근 세대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기회구조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부모요인-본인교육요인이 본인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역시 고려할 필요
- 또한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대물림 효과'는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부모요인, 본인교육요인, 그리고 노동시장요인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과 중간층, 그리고 소득이 낮은 층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임.
 - 흔히 '빈곤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대물림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존재



| 분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20차년도 조사 데이터

- 분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매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를 실시하여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주거,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고용상 특성, 소득 및 소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20차(2017년) 조사까지 완료하였음.
- 분석 대상: KLIPS의 1차(1998)년도~20차(2017)년 조사에 포함된 1980년~1990년 출생집단을 '자녀집단'으로 추출하고,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부모 정보를 추출하여 '부모-자녀'자료가 확보된 1,300명을 대상으로 분석
- 분석 방법: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시장 환경을 조절변수로 한 조절회귀분석을, 소득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하였음.

02 개인의 소득에 대한 영향요인과 노동시장 환경의 효과

|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모요인보다는 본인교육요인, 특히 대학 서열구조 내에서의 위치가 중요했으며, 부모요인 중에는 부모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노동시장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에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경제활동 기간 동안의 로그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요인보다 본인 교육요인, 특히 교육 서열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의 영향을 크게 받음.
 - 부모소득은 자녀의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교육은 자녀의 소득을 설명하는 정도가 더욱 미약함.
 - 개인의 교육수준을 대학졸업 여부로 보았을 때(모델2) 직업계고 졸업생은 일반고에 비해 낮은 소득을 나타냈으나, 개인의 교육수준을 대학 서열로 보았을 때(모델3)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문대와 지방사립대 사이에도 차이가 없어 개인의 교육수준 중에서도 교육의 서열구조 내에서의 위치가 영향력이 큼.
 - 단, 이는 부모요인이 개인의 교육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교육이 다시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간접요인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음.

〈표 1〉 개인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부모요인-본인교육요인의 영향력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로그부모소득		0.0128(0.0046)**	0.0097(0.0046)*	0.0085(0.0046)+
아버지교육 (준거: 초등이하)	∴	∴	∴	∴
	전문대 4년제이상	0.1767(0.0733)* 0.1305(0.0633)*	0.1335(0.0723)+ 0.0912(0.0626)	0.128(0.0722)+ 0.0597(0.0628)
어머니교육 (준거: 초등이하)	∴	∴	∴	∴
	고등학교	0.0944(0.0456)*	0.064(0.0450)+	0.047(0.045)
고교유형(준거: 일반고)			-0.0678(0.0282)*	-0.0456(0.0289)
대졸이상(준거: 대졸미만)			0.1613(0.0270)***	
교육서열 (준거: 전문대)	상위권대 및 서울소재			0.1438(0.0439)***
	경기·인천 및 지방국립대			0.1311(0.0404)***
	지방사립대			0.0287(0.0351)
	고졸이하			-0.1194(0.0297)***
상수항		5.1659(1.3800)***	4.9684(1.3563)***	5.1307(1.3594)***
Adjusted R2		0.1963	0.2270	0.2314
N		1,183	1,183	1,161

1) +p<.10, *p<.05, **p<.01, ***p<.001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3) 지면 제약 상, 통제변수의 통계치는 생략함.

|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점에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을수록 부모소득이 자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강해질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

-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의 노동시장 환경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추출한 연도별 소득 양극화 지수(DER 지수)로 측정하고,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

-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시점의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는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 효과는 조절변수(노동시장 양극화 정도)를 투입하지 않고 상호작용항만 투입할 때 유의하게 나타남.

〈표 2〉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의 부모소득-자녀소득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

변수		모델 2-1	모델 3-1
로그부모소득		0.0111(0.0046)*	0.0099(0.0046)*
아버지교육 (준거: 초등이하)	∴	∴	∴
	전문대	0.1469(0.0723)*	0.1438(0.0721)
	4년제이상	0.1277(0.0633)*	0.0978(0.0634)
어머니교육 (준거: 초등이하)	∴	∴	∴
	전문대	0.0101(0.0884)	-0.0139(0.0899)*
	∴	∴	∴
고교유형(준거: 일반고)		-0.0708(0.0282)*	-0.0475(0.029)
대졸여부(준거: 대졸미만)		0.144(0.0284)***	
교육서열 (준거: 전문대)	상위권대 및 서울소재		0.1468(0.0434)***
	경기인천 및 지방국립대		0.1356(0.0397)***
	지방사립대		0.0279(0.0346)
	고졸이하		-0.1026(0.0306)***
로그부모소득* DER 양극화지수		0.0068(0.0032)*	0.0081(0.0032)*
상수항		6.1322(1.422)***	6.4581(1.423)***
Adjusted R2		0.2298	0.2354
N		1,135	1,113

주 |
 1) +p<.10, *p<.05, **p<.01, ***p<.001
 2)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3) 지면 제약 상, 통제변수의 통계치는 생략함.

03 부모요인이 자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자녀 소득분위별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뚜렷하고, 노동시장이 불리할 때 부모소득의 영향력이 증폭됨.

- 부모요인이 자녀의 경제적 지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부모요인은 낮은 소득분위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컸으며, 본인 교육요인의 영향력도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분위별로 살펴볼 때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 10분위와 25분위의 낮은 계층에서 반대로 부모교육은 소득 90분위의 높은 계층에서 제한적으로 유의했음.
 - 교육서열의 영향은 낮은 소득분위에서는 대졸 여부가, 높은 소득 분위에서는 졸업한 대학이 교육서열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
-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가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분석한 결과 소득 10분위와 25분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노동시장 환경의 불리함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
- 앞의 분석과 결합하여 볼 때, 부모소득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뚜렷하고, 노동시장이 불리할 때 부모소득의 영향력이 증폭되는 측면도 마찬가지로 있음. 즉, 한국에서 부모-자식 소득의 연관성은 '빈곤의 대물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부모소득, 본인교육서열,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의 자녀소득분위별 효과

주 |
 1) +p<.10, *p<.05, **p<.01, ***p<.001
 2) 괄호 안의 수치는 부트스트랩 표준오차임.
 3) 지면 제약 상, 통제변수의 통계치는 생략함.

변수		OLS	분위(Quantile)				
			τ=0.1	τ=0.25	τ=0.5	τ=0.75	τ=0.9
로그부모소득		0.0099* (0.0046)	0.0200* (0.008)	0.0118* (0.0055)	0.0039 (0.0051)	0.0003 (0.0059)	0.0006 (0.0067)
아버지교육 (준거: 초등이하)	∴	∴	∴	∴	∴	∴	∴
	4년제 이상	0.0978 (0.0634)	-0.0086 (0.132)	0.0541 (0.0799)	0.0609 (0.0738)	0.0896 (0.0875)	0.2218** (0.1013)
어머니교육 (준거: 초등이하)	∴	∴	∴	∴	∴	∴	∴
	전문대	-0.0139* (0.0899)	-0.467 (0.2985)	-0.0719 (0.167)	0.1415 (0.1378)	0.1015 (0.0969)	-0.1445 (0.1707)
	∴	∴	∴	∴	∴	∴	∴
고교유형 (준거: 일반고)		-0.0475 (0.029)	-0.0376 (0.046)	-0.0795** (0.0302)	-0.0479 (0.0315)	-0.0684* (0.0337)	-0.0018 (0.0568)
교육서열 (준거: 전문대)	상위권대 및 서울소재	0.1468*** (0.0434)	-0.2308+ (0.1395)	0.1830* (0.0827)	0.2591*** (0.0517)	0.2813*** (0.0488)	0.3028*** (0.0688)
	경기·인천 및 지방국립대	0.1356*** (0.0397)	-0.0738 (0.1107)	0.1316 (0.0807)	0.2028*** (0.0504)	0.2346*** (0.0444)	0.1887*** (0.0563)
	지방사립대	0.0279 (0.0346)	-0.0618 (0.0657)	-0.0217 (0.046)	0.0252 (0.0402)	0.1128* (0.0451)	0.0943* (0.0457)
	고졸이하	-0.1026*** (0.0306)	-0.1358** (0.0511)	-0.0792* (0.0345)	-0.0956** (0.0315)	-0.0837* (0.0388)	-0.0611 (0.0537)
로그부모소득*DER 양극화지수		0.0081* (0.0032)	0.0111+ (0.0063)	0.0114* (0.005)	0.0062 (0.0041)	0.0035 (0.004)	0.0002 (0.0052)
상수항		6.4581*** (1.423)	6.1236+ (3.1301)	6.2132*** (1.8296)	6.4801*** (1.6479)	5.0899** (1.7355)	6.3186*** (2.4244)

04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부모학력보다 부모소득의 영향력이 더 크며, 노동시장 불평등의 증가는 부모소득의 영향력을 증가시킴. 이와 같은 대물림 효과는 특히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빈곤의 대물림’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노동시장 양극화 정도가 심화될수록 ‘좋은 일자리’를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경쟁에서 불리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난 이들의 불리함이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부모소득보다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은 개인의 교육인데, 직업교육을 받았는지 일반교육을 받았는지와 같은 교육의 내용이나, 최종학력이 어디까지인지 보다는 서열화 된 교육체계에서 상대적 지위가 어떠한지가 경제적 성취를 가장 잘 설명함.
 - 비록 본 연구에서 부모소득과 개인의 교육성취 중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성취로 나타났지만, 이는 부모소득이 개인의 교육성취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기존연구에 따르면 부모지위 → 자녀교육 → 자녀지위의 간접효과 영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남 재 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